

# 부처간에 독립과 소통, 시민들엔 열린 마당... '행복'을 아우르다

〈산업·교육·문화부〉

## 정부세종청사 2-2구역

북악산 자락에서 남쪽을 향해 서면 시원하게 뚫린 세종로가 보인다. 폭 100m의 대로는 태평로로 이어져 송례문까지 뻗어 있다. 이 곳은 정도전이 한양 천도를 단행하고 지도를 그려낼 때, 일부러 계획한 대로다. 대로는 분궁인 경복궁을 중심이자 시작으로 남쪽을 향해 뻗었고, 길 양 옆으로 정부 관서인 6조(六曹)와 한성부 등이 배치됐다. 당시 이를 두고 육조거리라고 불렀다.

6조는 이조(인사)·호조(경제)·병조(군사)·형조(법, 치안)·예조(외교, 교육)·공조(건설, 토목)로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다. 일례로 현재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자리는 본래 예조가 자리했던 곳이다.

당시 부처 사이에는 담벼락만 두고 있어 급히 회의할 일이 생기면, 이조판서·병조판서·예조판서 등이 문만 열고 나와 회의를 했다.

독립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집합의 기능을 최대로 살린 공간인 셈이다.

또 왕에게는 제왕적 통치권보다 인사권만 주어지고 신하가 통치하도록 하는 정도전의 유교 철학이 묻어나는 곳이다.

정부세종청사 2-2구역도 같은 배치형식을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2-2구역에는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의 부처가 있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호조·예조·공조에 가까운 부처가 각각 분할돼 집합한 곳이다.

정도전이 한양을 계획할 당시처럼, 세종정부청사 건립공사 2단계의 가장 큰 숙제는 3개의 부처를 독립적이면서도 한 데 어울리게끔 배치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는 기능적·형태적 조화가 설계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에 성패가 달렸었다.

우선 6조거리가 길게 늘어져 청계천에서 마무리되듯, 청사의 연속적인 배치가 눈에 띈다. 끝이자 시작 지점으로 상징성을 부여하고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독립적인 선을 구성하도록 기획했다.

전체 업무 공간을 남향으로 배치했고 채광복도를 통해 밝은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했다. 또 필로티(2층 이상 건물



조선시대 육조거리 철학 반영  
연속적인 배치로 효율성 역점

필로티 구조·하늘정원 입체감  
플랫·링크·제로시티 융합도

광범위한 공간과 건축물  
유기적 업무·기능에 활용해야



의 1층에 방을 만들지 않고 기동만 세운 공간) 하부 공간은 6개의 정면공간을 통해 김칫기에 재미를 더하고 다양한 공간을 구성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스터플랜의 중요한 개념인 플랫 시티(flat city)·링크 시티(link city)·제로 시티(zero city) 등 세가지 요소를 발전시켜 사람·도시·자연을 주제로 '행복마루'를 구현하고, 청사와 시민이 한 데 어우러지는 공생의 장을 마련해야 했다.

청사의 옥상공원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사·교육·휴식 등이 함께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입체적 공간을 구성했다.

도시부문에서는 주변 경관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을 배치했다. 정부청사의 관문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메인 연결통로를 구축했고 조경언덕을 통해 경관과 보안 계획을 함께 담았다.

마지막으로 자연부문에서는 경사입면과 채광복도, 맞통풍 구조뿐만 아니라, 아트리움(주택 건축의 가로 면에서 옥내로 들어가 처음으로 있는 홀식 안뜰) 등을 배치해 에너지절약형의 친환경 건축을 적용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다. 어디 남녀 사이에만 통하는 말일까. 부처를 한 데 모아놓은 데에는 부처끼리 소통하고 견제하고 하나가 되라는 뜻이다. 정도전도 이를 염두에 두고 한양을 계획했을 것이라 추측해본다. 건축이 부처 간 소통의 창구를 만들었다면, 진정한 소통은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들이다. 같은 곳에 누워도 다른 꿈을 꾸는, 부처 간 동상이몽(同床異夢)은 언제쯤 해소될까.

김현지기자 hyun@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대지면적: 75,546㎡  
건축면적: 39,590.14㎡  
연면적: 120,562.90㎡  
용적률: 116.01%  
건폐율: 52.41%  
용도: 공공청사  
규모: 지하 1층~지상 7층  
준공: 2013년  
설계: (주)해안건축

상반기 건축 시장의 트렌드를 한눈에!

2015

# 하우징브랜드페어 11th Housing Brand Fair

건축의 또다른 이름, 하우징브랜드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1월 22일(목) ~ 25일(일)

장소 coex 1층 전관

관람시간 10:00 ~ 18:00

전시품목 가구·홈테러, 조명·전기, 건축내외장재, 냉·난방, 욕실·주방, 창호, 전원주택·펜션, 주택설계 및 시공

### 세미나 일정

행사명	일시	주관	장소
일한 목재이용 세미나	1월 22일(목) (09:00~18:00)	일본목재수출 진흥협회	Conference Room 300
목조건축 세미나	1월 24일(토) (13:00~18:00)	캐나다우드	Hall E E1-E2

※ 자세한 세미나 일정은 하우징브랜드페어 홈페이지(www.leadexpo.co.kr)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전 등록 시, 현장등록 없이 즉시 입장 가능합니다.

문의 02-515-4800

무료관람 사전등록 신청

하우징브랜드페어 검색

※ 네이버 - 하우징브랜드페어 검색 또는 www.leadexpo.co.kr에서 무료관람신청 가능합니다.

www.leadexpo.co.kr  
리드엑스포



평판건축전

2015 하우징브랜드페어  
무료초청장(1매 2인)  
※ 이 초청장을 소지한 분은  
현장 등록 후 무료입장하  
실가능합니다.  
건설경제